

도시(핵심7)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

1. 현황 및 필요성

-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 실정을 반영한 부문별 중장기 종합 계획 수립 및 이행체계 구축
-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2045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사회 전 계층이 위기 의식을 가지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생활방식의 대전환 필요

2. 추진방향

○ 기후위기 종합대응 체계 구축

- ‘광산구 기후위기 대응계획’ 및 ‘제2차 광산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’ 수립 및 추진
- 감축목표 : 2030년 온실가스 155만톤CO₂eq. 감축(2018년 대비 45%), 2045년 탄소중립
- 주요사업 : (대응계획)7개 부문(발전 건물 수송, 도시공간 폐기물, 농축산 실천) 41개 사업(16개 부서), (적응대책)6개 부문(물관리, 산림/생태계, 재난/재해, 농축산, 건강, 에너지) 39개 과제(16개 부서)
- 주요내용 : 이행과제별 목표설정 및 추진계획 수립, 중간점검, 이행평가, 환류

○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 전개

- ‘미래를 위한 기후행동 프로젝트’ 추진
- 기간/예산 : 2022. 1. ~ 지속 / 35백만원
- 주요내용 : 시민의 자발적·주도적 기후행동 확산을 위해 캠페인, 교육, 시민활동 지원 등

○ 디지털 탄소다이어트 실천

- 전 직원이 함께하는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 업무 습관 만들기
- 디지털 기기 사용량 절감 / 에코체·절약인쇄 프로그램 사용으로 잉크 절감, 데이터 사용량 및 전기 사용량 줄이기,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 북마크 활용

3. 기대효과

- 세계적·국가적 기조에 선제적인 동참 및 자치구 단위의 우수(선도) 모델 구현
- 2045 탄소중립 실현으로 현재·미래 세대의 생존권·환경권 확보

4. 소요예산

- 기후위기 종합대응 체계 구축 : 44,582백만원 ※ 이행과제(80개)‘22년 예산
-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: 310백만원(‘22.~’26.)

5. 추진부서

- 환경생태과, 데이터정보과